

# 오피니언

## 월/요/광/장

김선정



### 광주비엔날레를 마치며

지난 11일 광주비엔날레 폐막식에 참석하기 위해 광주에 내려왔다. 이날 행사는 시립미술관 로비에서 비엔날레 전시기간 동안 작업을 지켜주는 자원봉사자들과 전시와 작업을 관객에게 설명하는 일을 해 온 도슨트, 그리고 전시를 함께 준비했던 비엔날레 재단의 임직원, 전시와 관련된 운송, 정비, 조영 등을 지원한 업체 및 테크니션, 그리고 스폰서들과 같이 한 자리였다.

다른 비엔날레의 폐막식과 다른 점은 치킨 교환권을 초록우산과 새날학교에 전달하는 자리라 마련된 것이다. 김법 작가의 '12가지의 조각적 조리법'은 통닭 모양의 12개의 조각을 만들어 전시기간 동안 판매하고 그 판매 금액 전액을 치킨 판매 회사의 치킨 교환권으로 교환하여 광주 및 인근 지역의 불우 어린이 후원 단체에 기증하는 작업이다.

이 작업은 예술 행위를 통해 발생하는 경제적 가치와 작품의 자본주의적 유통과정을 통해 구현된 '이미지의 실재성'이라는 그림의 주제를 다시 한번 재현한 것이다. 12개의 통닭 조각은 전시 오프닝에 다 판매가 되었고 판매액은 작가가 지정한 또

래오래치킨의 치킨 교환권으로 변환이 되어 새날학교에 절반이 전달됐다. 또한 나머지 반은 초록우산에 전달되어 지역의 다른 단체에 아이들의 간식으로 제공된다. 새날학교는 국제결혼자녀와 유학생, 외국인근로자, 새터민들의 자녀를 한국 내에서 공동체적인 삶을 살 수 있고 교육하도록 이천영 교장선생님이 설립한 학교이다. 2007년 1월 광주 광산구 평동 동사무소 내 광산외국인 근로자문화센터에 개교해 광산구 평동 초등학교 부속건물을 거쳐 지난 2월 광산구 삼도 남 초등학교 폐교부지로 이전했다. 현재 중국, 러시아, 몽골, 베트남, 필리핀 출신의 국제결혼, 유학생, 외국인근로자, 새터민 자녀 53명(2012년 6월 기준)이 공부하고 있다.

작업의 경제적인 가치를 어린이의 간식으로 바꾸는 과정을 통해 예술이 보고 즐기는 대상이 아닌 실질적으로 사회에 어

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보여 주고 광주에 지인이 필요한 학교에 아이들 간식을 제공할 수 있었다. 이런 기관들에서 교육받는 어린이들은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작가의 작업이 계기는 되었지만 광주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어린이들에게 간식을 보내주는 프로그램이 지속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서울에 돌아온 후 지난 23일부터 시작된 전시 준비로 한동안 정신없이 지냈다. 문득 이 원고를 쓰면서 광주비엔날레 준비를 위해 보냈던 지난 1년 6개월간의 일이 주마등처럼 스치고 지나간다. 2011년부터

월부터 광주비엔날레 일을 시작해 전시 주제를 공동 감독들과 의논하고 회의를 하며 작가들을 만나기 위해 다른 나라의 작업실을 방문하기도 하였고 비엔날레의 국제 홍보를 위해 두바이와 런던에서 2012 광주 비엔날레 프리젠테이션을 했다. 전시 준비 기간이 다른 전시에 비해 짧기 때문에 어떤 작업을 전시에서 보여줄지를, 새로 작업을 제작할 경우에는 작업이 전시에 맞춰 완성될 수 있도록 비엔날레 재단의 전시팀과 여러 준비를 같이 해나갔다.

그리고 보니 함께 일을 했던 여러 사람들에게 제대로 인사를 전하지 못하고 돌

아왔다는 생각이 든다. 광주 시내로 비엔날레 전시장을 확대하고 싶다는 계획에 동참해주신 무각사 청학스님, 광주극장의 김형수이사님, 그리고 대인시장의 조승기 선생님, 시립미술관의 황형성관장님께 광주일보의 면을 빌어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비엔날레 재단의 이응우 대표님을 비롯한 전시, 홍보, 관리팀 등 이번 비엔날레를 위해 열정을 바친 모든 스태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비엔날레 재단의 직원들이 열심히 작가들과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한 덕분에 광주에서 새로운 작업을 제작할 수 있었다. 그리고 비엔날레 전시관 뿐만 아니라 전시장을 광주 구도심의 광주극장과 사백 그리고 대인시장, 무각사로 확대 사용할 수 있었던 건 이 장소를 전시에 제공해주시고 도와주신 분들 덕분이다. 전시장에 전시된 작업들을 전시기간동안 쉬지 못하고 관리를 해준 비엔날레 재단의 직원들, 전시지원봉사자들과 그리고 열심히 전시에 대해, 작가와 작업에 대해 공부를 해서 관객에게 작업 내용을 열심히 설명해주신 도슨트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비엔날레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 왔지만 광주에서 같이 일하던 비엔날레 재단의 동료들의 얼굴이 새삼 그리다.

(2012 광주비엔날레 공동예술감독)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시설

### 야권 후보 '단일화 정신' 이어가려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이 진행돼온 문재인-안철수 대통령 후보 간의 단일화는 지난 23일 안 후보의 전격 사퇴라는 극적 반전으로 막을 내렸다. 이로써 올해 18대 대선은 박근혜-문재인 후보의 양자대결 구도로 치러지게 됐다.

두 후보는 대선 24일 전이자 후보등록 첫날인 25일 후보등록을 하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27일부터 '22일간의 대열전'에 돌입한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 결과 양자 가상대결에서 박 후보와 문 후보가 오차범위 내 초방범의 승부를 벌이는 양상이 지속되고 있어 대권과정을 향한 두 후보의 피 말리는 대열전이 예상된다.

안 후보의 통큰 결단으로 야권 단일화 이슈는 일단락 됐지만 이를 바라보는 지역민들은 안도감과 아쉬움이 교차한다. 무엇보다 두 후보의 끝없는 대립을 지켜보며 '혹시 단일화가 영영 물거품이 되는 것 아닌가' 걱정하던 많은 유권자들을 안도하게 했다. 또한 공식 대

선 후보 등록 전에 단일화를 이루겠다는 약속도 지켜냈다.

하지만 두 후보가 제대로 된 경쟁을 펼치지 못하고 한쪽의 일방적인 사퇴로 끝난 것은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따라서 야권 후보 단일화는 극적으로 어려운 고비를 넘겼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사실상 진정한 단일화는 이제부터 시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무엇보다 단일화 정서는 안 후보의 대승적 결단에 따른 측면이 크다. 문 후보로서는 안 후보의 사퇴결정에 정권교체와 정치쇄신으로 답해야 할 입장이었다.

문 후보는 '친노'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 범야권을 아우르는 포용력과 본연의 경쟁력을 보여줘야 한다. 애초 계획했던 공동의 정책과 공약 발표, 차기 국정운영의 역할 분담, 공동선대위 구성 등의 과제들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 그것이 야권의 '아름다운 단일화' 정신을 실질적으로 이어가는 첫 걸음이다.

### 신협이 출자자인 서민에게 피해 줘서야

대표적인 동네 서민금융기관인 광주 지역 신용협동조합 8곳이 지난해 '유령 건설기계' 대출 사기에 휘말려 수백억원의 피해를 입었지만 1년이 지난 뒤에도 손실금의 대부분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대출과정에서 신협 직원들의 잘못과 비리가 드러났는데도 대부분 손실액을 결손 처리해 출자한 서민들만 피해를 입게 됐다.

신협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피해 금액 175억9900만 원 가운데 지난 1년3개월 동안 회수한 금액은 조합별로 2억~6억원에 불과하다고 한다. 북광주 신협의 경우 회수금 금액이 52억7900만 원, 광주YMCA신협 47억6700만 원, 계림신협 39억1600만 원, 빛고을신협 28억1000만 원 등에 이른다.

이들 신협은 건설기계를 담보로 대출해주는 과정에서 대출자 신용상태 파악, 담보물건 현지조사 등의 대출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신협 직원들이 금품을 받고 대출 사기를 도운 것이다.

신협은 이후 175억 원을 결손금으로 처리하고, 대출해준 허위 명의자 160여 명에 대해 채권 추심 과정을 밟는다. 하지만 대부분이 신용불량자여서 환수가 어렵다고 한다. 특히 건물과는 달리 건설 기계와 차량은 보험가입 대상이 되지 않아 손실보장도 받지 못했다.

신협은 서민들의 출자금을 모아 설립된 금융기관이란 점에서 손실금 미회수와 결손 처리는 결과적으로 그 피해가 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운영 수익으로 손실금을 채워 나가야 하는 상황이 불가하다고 한다. 북광주 신협의 경우 회수금 금액이 52억7900만 원, 광주YMCA신협 47억6700만 원, 계림신협 39억1600만 원, 빛고을신협 28억1000만 원 등에 이른다.

이들 신협은 건설기계를 담보로 대출해주는 과정에서 대출자 신용상태 파악, 담보물건 현지조사 등의 대출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신협 직원들이 금품을 받고 대출 사기를 도운 것이다.

## 법조칼럼



정가원

지난달 초 지역 내 모 고등학교에서 학교 폭력 방지를 주제로 준법 강의를 했다. 학교 폭력 가해자에 대한 형사 제재,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법률적 조치 위주의 강의였다. 취사로서 학생들 앞에 섰던 것이기에 법률적 관점에서의 이런 강의는 당연한 것이겠지만, 강의를 전후해 필자의 마음 속에는 "이 문제의 근본적인 예방책은 없을까"라는 물음이 계속됐고, 그런 생각들 속에 떠오른 몇 가지 장면이 있었다. 다음은 필자의 경험담이다.

#1 그는 초면에 가까운 사이였다. 우연하게 점심을 함께하게 됐고, 그 자리에서 시작된 대화는 저녁이 될 때까지 몇 시간가량 이어졌다. 그는 이성과 이렇게 긴 대화를 해본 적이 처음이라, 그녀에 대한 호감이 싹트게 됐다고 했다. 그녀는 사실 그 자리에서 많

### 진심으로 들어줄 때 생기는 변화들

은 말을 하지 않았다. 단지 몇 가지 질문을 했었고, 그녀의 질문에 따라 자신의 이야기를 늘어놓는 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적당한 호응과 진심 어린 공감을 했을 뿐이다.

#2 그는 소위 '왕따'였다. 반 아이들은 쉬는 시간이면 그 친구를 짓궂게 괴롭혔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만, 한 손을 책상에 올려놓고 벌어진 손가락 사이를 다른 손에 든 문구용 칼로 반복해 찌르는 식으로 분노를 표출했다. 필자는 안타까운 마음에 응기를 내 그 친구에게 다가갈 말을 걸었다. 처음에는 달팽이처럼 자신의 마음을 숨기던 그 친구는 조금씩 자신의 이야기를 하며 마음을 열었고 언젠가부터 그 친구는 웃기 시작했다. 필자가 그 친구에게 건네는 말보다 그 친구가 필자에게 하는 이야기가 더 많아져 필자는 그저 듣고만 있어도 됐을 때쯤 어느덧 그 친구를 향한 반 아이들의 왕따 놀이도 그쳤다.

#3 성격적 가해자였던 그는 비난받아야 마땅했다. 그는 초범이었지만 범행 방법은 너무나 과감하고 끔찍했다. 포승줄에 묶여 있는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필자의 동생과 나이가 같았다. 한 순간의 무모한 선택으로 찬란해야 할 젊

은 날을 구렁텅이에 몰아넣은 그의 모습에 가슴이 아파 도대체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는지 몰았다. 잠시 침묵 후 그는 조금씩 이야기를 열더니 결국엔 울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며칠 후 필자는 양형기준에 따라 가장 높은 구형량으로 그를 기소했다. 그로부터 몇 달 뒤 그가 필자를 만나고 싶어한다고 했다. 검사실을 다시 찾은 그는 필자에게 뜻밖에도 "고맙다"고 했다. 인생의 나락에 떨어져 있던 순간, 너무나 추웠던 그때,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필자가 건넸던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나 따뜻했다며, 다시는 이러한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비록 필자가 그에 대한 처벌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앞서 3가지 장면 속에서 그들은, 예전과는 다른 긍정적인 마음의 변화를 경험한 것으로 보인다. 그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과연 무엇일까? 필자는 그 답이 '진심으로 들어주기'라고 생각한다. 어색하고 불편한 관계에서, 세상에 홀로 있는 듯 한 상황에서, 자신에게는 비난만이 남아 있다고 생각되는 상황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으며 공감해줬을 때 그들은 자신이 누군가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

고, 그로 인해 마음의 새로운 변화를 선택할 힘을 얻었던 것이라.

사건을 처리하면서 소년범들을 비롯한 범죄자들을 만날 때마다 자주 느끼는 것이 있다. 범죄자가 양산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가정의 분열에 따른 애정 결핍 때문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인한 내면의 분노를 잘못된 방식으로 외부에 표출함으로써 범죄가 이루어지곤 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럴 주변에 있던 누군가가 그들 속에 있는 분노와 사연에 귀 기울여 줬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결국 진심으로 들어준다는 것은 그들에 대한 사랑과 관심의 표현이자, 그들의 잘못된 선택을 막아주는 좋은 예방책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주변을 둘러보자.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를 바라고 있을 그들에게 다가가 그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꺼낼 수 있도록 먼저 말을 건네보자. 그리고 그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내어놓기 시작한다면, 내 생각과 내 기준은 버리고 그들의 입장에 서서 잘 들어보자. 우리의 이러한 작은 노력, 마음이 꺼져 불안한 길을 걷고 있는 우리의 청소년들, 그리고 많은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것이라 믿는다. 그리고 필자는 업무량이 때때로 자꾸 잊곤 했던 다짐, 사건 관계자들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들어주는 겸사가 되겠다던 그 다짐을 다시 되뇌어 본다.

(광주지정 공판부 검사)

## 기고



최성욱

'어머니' 하면 농촌이 고향인 대부분의 사람들은 머리에 하얀 수건을 두르고 부엌에서 점심과 사침을 준비하고, 부엌일을 마치면 논과 밭으로 호미를 들고 일을 하러 나가셨던 분을 떠올리게 된다. 그리고 역사 속에 회자되는 훌륭한 어머니를 찾는다면 맹모(孟母)가 있다.

유학을 갔다 공부할 때 마치고도 전에 집에 돌아온 맹자를 보며 맹모는 짜고 있던 베를 베를 두말없이 칼로 잘라 버렸다. 학문을 중도에 포기하면 짜다 만 베를 자르는 이치와 같다는 걸 보여준 '단기교' (斷機之教)이다. 수 천년이 지난 지금도 추앙받고

### 자녀에게 줄 최고 선물은 '부부간의 사랑'

있는 맹자의 뒤에는 '맹모삼천지교'(孟母三遷之教)의 어머니가 있었다.

어머니와 함께 가족의 한 축인 우리들의 아버지는 어디에 있었고, 지금 어디에 있는가? 과거 풍습에 비춰볼 때 아버지는 그저 계산 듯 안 계산 듯 항상 근엄하셨고, 우리가 편하게 다가가기에는 왠지 거리감도 느끼는 그런 존재였지만, 자식들 뒤를 지켜주시던 묵직한 베품 같으신 분이셨다. 또한 예전에는 '아버지의 자리'라는 게 있었다. 온통 문화로 말하자면 아랫목은 아버지만의 공간이었다.

하지만 시대는 바뀌었다. 미국 대통령인 오바마는 "단순히 아이가 있다고 아버지가 아니라, 아이를 기르고 북돋워줄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아버지이며, 아버지가 아이들에 대한 책임을 저버렸을 때 어떤 정부도 그 모자람을 메워줄 수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 시대의 아버지 역할을 잘 대변해 주고 있다.

아버지가 담당해야 할 훈육, 통제, 소통의 역할이 상실될 때 자녀의 지적, 정서적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 제대로 된 아버지의 역할이아말로 요즘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힘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해결책이다.

가장인 아버지로서 가족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 안전을 책임지는 보호자로서의 역할에 만족하지 말자. 이제부터 자식교육은 아버지가 답이다.

가정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아버지의 부재현상이 확산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가정의 균열은 곧 사회 붕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2011년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소년·소녀가장 전체 699세대의 절반에 해당하는 322세대(46%)가 부모의 이혼과 가족 등을 원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

물은 화목한 가정과 함께 '부부간의 사랑'이다. 그 사랑을 통해서 부모는 자녀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자랄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주어, 자녀들이 자신감을 키우고 자기 자신의 인생의 길을 선택하는 자유를 발견하도록 격려하게 된다. 헨리 나우웬(Henri Nouwen)은 그의 책에서 "자녀들은 부모의 손님이야"고 표현했다.

왜냐하면 자녀들은 그들을 위해 마련된 공간으로 들어와 잠시 15년, 20년 혹은 25년 간 머문 후, 그들 자신의 공간을 만들기 위해 다시 떠나 버리기 때문이다. 부모들이 "우리 아들", "우리 딸"이라고 부르지만 자녀들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고, 여러 면에서 자녀들은 타인이다.

부모들은 자녀들을 알아야 하며, 그들의 감정과 약점을 발견하고, 자녀들이 성숙하도록 인도하고, 그리고 자녀들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아버지들의 자리는 아버지 스스로 찾아야 한다.

'부부간의 사랑'으로 아이들에게 최상의 선물을 주는 멋진 아버지가 되도록 하자.

(**농협중앙회 구례교육원 교수**)

### 난립한 모텔 정비해 외국관광객 맞는 속도로 바꾸자

외국 관광객이 우리나라에 와서 제일 먼저 묻는 말은 "모텔이 뭐 하는 곳이야?" 하는 거라고 한다. 호텔도, 유스호스텔도 아닌 모텔. 그 모텔은 우리 광주에만 있는 게 아니라 서울, 부산, 대구, 대전 등 전국 크고 작은 데서서서 어디 가봐도 참 많다.

그대서서도 관광객을 재울 수 있는 저렴한 가격에 깔끔한 숙박시설은 항상 부족하다고

한다. 고급 호텔은 웬만큼 있지만 그건 너무나 비싸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오는 중국인 관광객 등을 재우기에는 너무 부담이 돼서 결국 여행사들이 숙박시설 부족으로 고생한다는 것이다.

그나마 많은 것이 바로 이 중저가 모텔인데 이것들이 대체로 유흥가나 환락가 한복판에서 울긋불긋한 네온사인을 번쩍이고 있어

서 관광객을 유치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모텔은 이렇듯 '퇴폐'와 '불륜'의 러브호텔'이란 어두운 이미지가 드리워져 있다. 가족 여행 중 이런 내 트거운 상황에 처해본 경험을 외국인 관광객이 겪는다면 얼마나 민망하고 난감할까.

한류 열풍 등으로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은 늘고 있는 요즘 외국 관광객들은 하룻밤에 수백 달러짜리 호텔에서 머물렀지, 아니면 불가피하게 이런 러브호텔로 내몰리고 있다고 한다.

이런 현상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외국처럼 3만 원~6만 원대의 저렴한 숙박비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 모텔을 지칭해 브랜드화하면 어떨까 싶다.

즉 모텔 중 지나치게 환락가에 위치하지 않고, 깨끗한 곳을 골라 대도시별로 브랜드화해서 체인으로 묶어 영업하면 될 것이다. 그러면 퇴폐 불륜의 모텔이 아니라 외국인 손님을 맞이하는 싸고 질 좋은 숙박시설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걸로 본다.

▲유일숙·광주시 동구 수기동

<b>光 州 日 報</b>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b>金汝松</b> 논설주간 <b>申港樂</b> 편집국장 <b>曹庚亮</b>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업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어촌매주 2200-62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정경부 2200-612	체육팀 2200-697	광고이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대표 FAX 222-4918)	사진부 2200-693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사회부 2200-616	조사부 2200-571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대표 FAX 222-4267)	전신부 2200-685	기획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